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27)(2/10/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2 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택들을 기억함, 2-3 절

롬 11:36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 6:8 -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욥 1:20-22 - 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초자연적으로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들로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너그러우시고 후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지만,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 없이는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 때문인 양 자랑할 수 없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인 것처럼 자신을 높일 수 없으며, 자기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을 깔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더 겸손하고 경건하게 주께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고 나은 자이고,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택들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3. 적게 받은 사람은 낙심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보다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선하심을 지극히 높여 찬송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거저 아낌없이 지극히 후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주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롬 11:36).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실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각 사람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주님이 은혜 주심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가져야 할 몇 가지 마음 가짐과 자세가 있다. **첫째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보이는 공통된 반응 중의 하나이다. 시 136 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자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며 자신이 감사를 고백했다. 시 136:1, 11, 23 -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특정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범사에 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살전 5:18 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진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다. **마 6:8 -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빌 4:19 -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둘째로,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감사했다. 욥 1:20-22 - 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말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은혜를 고백한 욥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였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이다.

셋째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얻어 주님께 드릴 줄 안다. 우리는 마 25 장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완전히 다른 마음 가짐과 자세를 보였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는 그들이 받은 것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록 적게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 그것을 활용하고 일하여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음에도,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말았다.

사실 달란트는 그 자체가 매우 큰 돈이었다. 달란트는 중량과 화폐가치를 의미한다. 달란트는 중량으로는 20kg 에 해당하고, 화폐가치로는 당시 로마 화폐인 6000 데나리온과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시골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임금이었다. 따라서 6000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6000 일, 연수로 환산하면, 16년 이상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서 매우 큰 돈이었다.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땅에 묻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심은 받은 자의 마음 가짐과 자세이다. 예수님은 적게 받든지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활용하여 열매를 얻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1)라고 말씀하심으로 은혜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알려 주셨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근심, 염려, 원망이 아니라, 찬양,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2. 한국의 대선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3. 가난, 질병, 자연재해,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며, 구원받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